

3.15.2026 [달라스 영락장로교회] 주일설교 | 명치호 목사 | 이렇게 기다려야 합니다. | 누가복음 2장 25절

달라스영락장로교회 The Korean Young Nak Church of Dallas · 명치호 목사 · 2026-04-25

핵심 정리

- 시몬과 안나의 삶은 서로 다르지만 둘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.
- 400년의 기다림 속에서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았다.
- 신앙의 최고봉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기다리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.
- 성령의 지시를 받아 경건하게 살아야 진정한 기다림을 경험할 수 있다.

나눔 질문

1. 시몬과 안나의 기다림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?

2. 여러분의 삶에서 기다림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요?

3.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나요?

4. 성령의 지시를 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?

이번 주 적용

이번 주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. 또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 경건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보세요.

기도·묵상

하나님, 저희가 기다림 속에서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, 성령의 지시를 따라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.
